

하며 사양관리 기술을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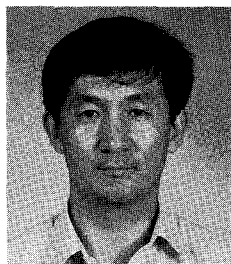
내것으로, 내일로 만들었던 것이 힘들었던 1년의 시간을 견디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앞의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지만(힘든 상황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또 온다해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

을 것 같다.

5년동안 채란업을 하면서 몇 가지 내·외부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확실한 방역체계 확립 및 투명성 있는 난가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장사장의 소박한 바램이다. **양계**

양계 위기십결(危機十訣)



이 상 희
(우성사료 양계 PM)

지난 IMF 기간 및 금년 전반기 동안 많은 농가들이 불황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왔다. 위기를 극복해가는 농가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우리도 농가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가 양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10가지 서비스와 전략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1. 축자쟁선(畜者爭先)

축산업, 특히 양계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당 생산성 증가대책과 사료비 인하에 주력하는 제품, 산란돌과개념과 프로그램 적용했다.

시세변화에 일비일회하지 않고 농장계란 생산비와 계육증체 kg당 생산비를 아꼈다.

2. 사소취대(捨小取大)

한포의 사료단가가 싼 것 보다는 계란 1개에 최종적으로 얼마인가를 계산하며, 회사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피강자보(彼強自補)

양계 산물가격이 낮고 소비가 위축될수록 소독, 백신접종 등이 소홀해져서 오히려 질병 발생이 높았다. 주변환경이 어려울수록 기본 방역프로그램을 강조했다.

4. 신물경속(愼勿輕速)

불경기일수록 가격변화 예측을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 특히 육성계 입추와 노계도

태, 환우시기 결정 등은 일관성이 있는 농장의 큰 흐름을 우선해야 된다. 따라서 성급한 결정을 앓고 시설투자 등도 적시에 필요하다면 꼭 맞는 수준을 실시해야 했다.

5. 불득탐승(不得貪勝)

양계업의 생산과 수급 사이클로 볼 때, 호불황은 피할수 없는 흐름이다. 늘 이익만 낼수는 없다. 불황때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호황에 대비한 직원교육과 농장설비투자, 방역대책 등을 강조했다.

6. 봉위수기(逢危須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없고 생산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농장에서 불필요한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특히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노계와 병계는 도태를 권장했고 고능력 신계군만 운영하는 것이 채산한계 산란율에 유리하였다. 육계도 시세에 맞는 입추시기를 가져가도록 권장하였다.

7. 공피고아(功彼顧我)

시설을 닦하고 시세와 질병을 닦하여 투자를 선행하기보다 우선 우리 농장의 사양관리 능력, 방역관리, 사양설비와 청소, 사료제품 등을 되돌아보고 검토하는게 더 중요하였다.

8. 동수상응(同手相應)

농장의 수익은 일관된 전략과 철학과 비슷한 농장주의 신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관되게 생산비 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바르게 정립해야 직원이 바뀌거나 불황에도 견딜 수 있다.

9. 입계의완(入界宜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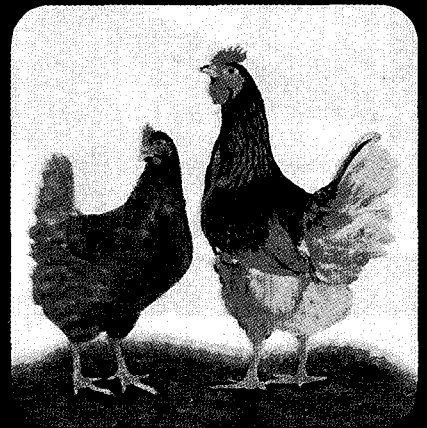
농장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농장에서 붙어살아야지 외부일은 가능하면 잠깐씩 보고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토록 하였다.

10. 세고취화(勢孤取和)

농장이 어려울수록 전문가의 진단과 경영지원, 방역팀들의 농장점검, 자금흐름의 예상과 준비 등이 중요하였다. 약품과 사료, 시설, 종계·부화장과의 깊고 신뢰할만한 유대관계가 더 필요하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대군무창계사, 농장들과 가금티푸스로 고생하는 농장들을 위해 무창전문사료와 티푸스 개선 사료가 위 기간 중 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양계**

Enrofloxacin
제제의
색다른 경험

엔
로
록
스



 주식회사 성원

032-565-2621

<http://www.sungwonvet.co.kr>